

신증후군을 동반한 신정맥 혈전증 환자에서 하대정맥필터와 혈전용해요법을 통한 치료 1예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내과

서지영 · 허란 · 주혜원 · 김상현 · 박원도

A Case of Thrombolytic Treatment with IVC Filter of Progressing Renal Vein Thrombosis in Nephrotic Syndrome

Seo Jiyoung, Heo Ian, Joo hyewon, Kim Sanghyun and Park wond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Sanggyepaik Hospital

성인에서 발생하는 신정맥 혈전증은 주로 신증후군과 관련되며, 막성 신염에 의한 경우가 5- 62%로 가장 흔하다. 정맥 혈전증의 치료 목적은 신기능의 보존과 심각한 혈전색전의 합병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조기 진단과 적합한 치료 여부는 예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자들은 신정맥 혈전증을 동반한 신증후군 환자에서 혈전용해요법으로 치료한 1예를 보고한다. 34세 남자가 3일간의 좌측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2달전부터 거품뇨가 있었고, 최근 들어 하지 부종이 발생하였으나 체중 증가는 없었다고 한다. 특이 과거력이나 약물 복용력은 없었고, 신체외상의 개인력은 부인하였다. 내원시 혈압은 150/90 mmHg, 체온은 36.6℃ 였고, 진찰 소견에서 급성 병색을 보였고, 좌측 척추 늑골각 타진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양측 경골알 함요부종은 관찰되지 않았다. 혈소판 181,000/mm³ 프로트롬빈시간 11.8 초, 활성 부분프로트롬빈시간 24.2초, 혈청 크레아티닌 0.9 mg/dL, 요비중 1.020, 요단백 3+, 혈청 총단백 4.9g/dL, 알부민 2.5g/dL, 콜레스테롤 281 mg/dL, 24시간 뇨단백 10770 mg였다. 악화되는 복통 호소하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다. 전강조영상에서 신장과 요로에 결석은 관찰되지 않았고, 후강조영상에서 하대정맥과 좌측 신정맥 혈전이 관찰되었고, 좌측 신장의 부종과 조영증강의 지연이 관찰되었다. 헤파린으로 항응고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좌측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하대 정맥 필터 삽입 후 유로키나아제로 혈전용해요법을 시행하였다. 약물 투여 후부터 좌측복부 통증이 호전되었고, 24시간 후부터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48시간 후 단기 추적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하대정맥 내에 혈전은 보이지 않았고, 좌측 신정맥내에 크기가 감소한 잔존 혈전이 관찰되었다. 필터 제거 후 헤파린 투여를 시작하면서, 와파린으로 교체하였다. 혈전용해요법 8일째 시행한 검사에서, 24시간 뇨단백은 7109 mg으로 감소하였고, 재발하는 증상 없이 퇴원하여 2달 후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단기 추적 예정이다. 증례의 환자는 혈전증을 일으킬 다른 유발 인자 및 항응고 인자 검사에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C³, C⁴는 정상범위였다. 신정맥 혈전증에 의해서도 단백뇨는 발생할 수 있으나, 경도의 단백뇨라는 점에서 증례의 환자와는 차이가 있다. 신증후군을 동반한 신정맥 혈전증의 원인 중 막성 신염이 가장 흔한 경우이며, 향후 진단을 위하여 신생검을 계획하고 있다.

Key Words : 신정맥혈전, 혈전용해, 신증후군

Renal vein thrombosis, Thrombolysis, Nephrotic syndrome